

북스

Books



시스템과의 슬픈 싸움 고독한 인간에 바치는 悲歌

소설가 은희경(48·사진)씨가 '상속'(문학고지성사) 이후 5년 만에 새 소설집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를 펴냈다. 2005년 여름부터 올 초까지 기간지에 발표한 중·단편 6편을 묶었다.

1990년대 작품들에서 사회에 대한 냉소와 위악을 보여왔던 저자는 이번 소설집에서 고독이라는 인간 영혼의 주제에 몰입표를 던지며 연민을 이야기한다.

표제작은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비탄 사내 '나'의 풍모 탈출기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이태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봤던 보티첼리의 명화 '비너스의 탄생'을 잊지 못했다. 그림 속 비너스는 주인공으로서 부러울 따름인 현대적 미의 상징이자, 구조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아름다운 '탄생'을 뜻한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사생아였다.

주인공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것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난 후다. 달라진 모습을 생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몸무게 10kg 이상을 빼면서 다이어트가 성공에 접어들 때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유품으로 남긴 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끝내 아들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은희경 지음

다음은 '나'를 멸시했다.

평론가 신형철씨는 "이 소설은 완강한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인간의 간간함에 바치는 비가(悲歌)"라고 말한다. '시스템'과의 슬픈 싸움은 '날씨와 생활'의 주인공 여중생 B의 이야기에서도 계속된다. 세계에는 블랙홀로 이어지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고 믿는 B는 동화 '소공녀'처럼 어느날 얼굴도 모르는 먼 천천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아닌지, 우연히 길을 가르쳐준 소년이 신분을 숨긴 대통령의 아들일 수 있다든지 식의 풍상을 즐긴다.

전학 간 학교에까지 불꽃 찾아온 '소년소녀 세계명작전집'의 수급원은 B에게 커다란 벽과 같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아이러니하게도 B가 꾸는 동상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소년소녀 세계명작전집'이라는 사실. 수급원과 함께 집으로 오는 동안 B는 울어도

보고, 도망도 쳐보지만 '시스템'은 완고하기만 하다.

"B가 갑자기 소리 높여 깔깔 웃기 시작했다. 머리 카락은 험글어지고 무릎에는 흙이 묻은 채로 어깨를 들먹이며 정신없이 웃는 것이었다...아, 그렇게 많은 인생의 압축을 해독했음에도 이 세상에 놀랄 일이란 전혀 없는 걸까."(본문 138쪽) B의 슬픈 싸움은 한바탕 크게 웃는 것으로 끝이 났다.

저자는 또 만년고시생이 생일날 찻집에서 잠에 빠져들면서 접하게 되는 몽환적인 이야기를 다룬 '고독의 발견', 기차 안에서 자신과 같은 책을 들고 동석한 남자를 만나면서 시작해 현실의 우연과 필연에 대해 묻고 늘어지는 '의식을 찬양함' 등을 통해 현실과 환상을 오간다. 전작에 비해 냉소가 걸려 있지만 수사의 치밀함과 특유의 발랄한 언어감각은 여전하다.

저자는 "우리가 그토록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멸시하기 때문이다"는 마이너 릴케의 시 '두이노의 비가'에 등장한 문장으로부터 표제작의 제목이 생겨났다"고 밝히고 있다. 주인공의 설명과 성우의 목소리로 꾸며진 단편 '날씨와 생활' 오디오북이 부록으로 제공된다. <창비·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 순교자의 희생 '순교자의 나라' 4권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을 탄압한 신유박해(1801년)와 기해박해(1839년)는 한국 천주교사 뿐 아니라 전체 역사에서도 비극적인 사건 중 기억된다.

방송작가 박도원씨가 쓴 '순교자의 나라'(전 4권)는 우리나라에 가톨릭 신앙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피를 흘린 조선 순교자들의 삶과 희생을 담은 역사 소설이다. 1·2권은 신유박해를, 3·4권은 기해박해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1811년 종교 박해에서 살아남은 한 조선인이 로마 교황청에 탄원서를 보냈던 사실에서 힌트를 얻어, 편지의 발신자 김 프란치스코를 소설의 주인공 김갑녕으로 되살려놓았다. 두 번의 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김갑녕의 눈을 통해 역사 속 순교자들의 감동적인 사연이 펼쳐진다.

<예담·각 권 9천500원>

책·영화·드라마속 숨은 요리 이야기

런~의 맛있는 컬러 레시피 김선미 지음

문화와 요리를 맛깔스럽게 버무려낸 책이 나왔다. 블로그 스타 김선미씨가 펴낸 '런~의 맛있는 컬러 레시피'는 책과 영화, 드라마, 음악,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을 소재로 한 색다른 요리 에세이다. 독일 유학중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야했던 저자는 어느날 부턴가 영화나 소설, 그림 속에 등장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요리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바비큐 꼬치'에 비유한다. 꼬치에 꽂는 재료가 무궁무진하듯, 모든 연인들은 상대방의 특정 요소들로 자신만의 꼬치구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 꼬치구이를 직접 만든 저자는 사랑과 연인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덧붙인다.

책에서는 소설 '태백산맥'의 꼬막부침, 임제의 시조와 화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봉골레 스과게티,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마들렌, 만화 '맛의 달인'의 비프 스테이크 등 다양한 요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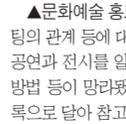
또 소박한 삶을 지향했던 헬렌 니어링의 윌도프 샐러드, 지휘자 정명훈의 불고기 샌드위치, 황석영의 매운 장떡 등 인물들과 관련 있는 요리도 소개된다.

저자는 "문화 속의 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음식과 달리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문화라는 양념으로 버무려져 있다. 그래서 항상 음식, 그 이상이다"라고 말한다.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가 쏠쏠할 테지만 굳이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저자가 소개한 요리 덕에 다시 한번 책과 영화와 그림을 챙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다. <이미지북스·1만3천8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아구의 추억=1970~80년대 국민을 웃고 울렸던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반추하는 책이 출간됐다. 책과 같은 제목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중인 김은식씨는 스타 선수는 물론 비운의 선수들까지 모두 31명의 한국 야구 역사를 더듬는다. <뿌리와이파리·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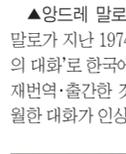
▲문화예술 홍보론=인문학 출신 임연철씨가 문화예술과 마케팅의 관계 등에 대해 쓴 이론서. 책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무대 공연과 전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 보도자료 작성과 인터뷰 준비 방법 등이 망라됐다. 이와 함께 각종 공연의 실제 보도자료를 부록으로 달아 참고하도록 했다. <커뮤니케이션북스·1만8천원>



▲지금 여기의 세계사=KBS 특파원 26명이 전해주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이 담겨 있다. 온난화로 침몰 위기에 처한 작은 섬 투발루 공화국, 30년 넘게 전쟁이 계속되는 아프리카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화면에서 볼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진다. <웅진씽크빅·1만5천원>



▲아프리카 초원학교=방송작가 구혜경이 일곱 살, 다섯 살짜리 두 아이와 함께 6개월 동안 지냈던 아프리카의 삶을 글과 사진으로 옮겼다. 아프리카를 온 몸으로 느꼈던 이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아프리카 식 삶'의 모습이 전해진다. <한겨레출판·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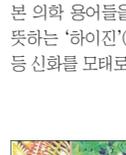
▲앙드레 말로, 피카소를 말한다='인간조건'의 작가 앙드레 말로가 지난 1974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책이 같은 해 '피카소와 대화'로 한국에 소개된 것을, 원 번역자 상명대 박정자 교수가 재번역·출간한 것. 문명에 저항하는 예술을 주제로 시·공을 초월한 대화가 인상 깊다. <기파랑·1만2천원>



▲과부마을 이야기(전 2권)=콜롬비아의 오지 마을 남자들이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게릴라 전투에 끌려가는 바람에, 여자들만 남아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내용. 개성있는 과부들의 특색 있는 이야기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뿔·각 권 9천원>



▲그 영원한 달빛 신사임당=광양 출신 작가인 영씨의 장편소설. 사임당이 예능에 소질을 나타내기 시작한 5세 때부터 48세 때까지의 삶을 다루고 있다. 조정의 역사를 비롯한 전통 문화, 가정 교육 등이 사임당의 눈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동아·1만2천원>



▲메디컬 오디세이=현직 의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 들여다본 의학 용어들을 정리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욱씨는 위생을 뜻하는 '하이젠'(hygiene), '만성'(chronic), '모르핀'(morphin) 등 신화를 모태로 하는 상당수 의학 용어들의 기원을 쫓는다. <한울·1만1천원>



▲고사리의 세계=전 세계 고사리 513종류를 특징에서 재배방법까지 800여종의 사진과 함께 담은 컬러 도감. 책이 단순 전문서적을 넘은 이유는 저자들의 고사리 사랑 때문이다. 한국양식식물연구회 김정근 전 회장 등은 희귀한 고사리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까지 담았다. <플래닛미디어·6만5천원>

페 백 이바지 전문업체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재료만 선별하여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차려드립니다.

일출상 ₩190,000원	오름상 ₩330,000원
대기족상 ₩880,000원	소기족상 ₩450,000원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 ☎(061)383-8283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업체/ISO9001 인증업체
www.damyang.co.kr **직접배송**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 **4월13일 OPEN!**
모디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

두암동 홈플러스 맞은편 200평규모 초대형 전시장 기대하십시오!

신제품: **명주귀재**, **모디쉬갤러리**

충무주IC,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홈플러스 맞은편, **속교**, **한국통신**

취급품목: **황도월휴침대, 장수운동침대, 커튼, 침장 등**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